

“중소기업 살아야 전주 경제 발전”

우범기 전주시장, 강한 경제 전주 견인할 중소기업인연합회 소속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우범기 전주시장이 강한 경제를 견인할 전주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찾아가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범기 시장은 23일 팔복동 제2산업단지에 위치한 소담공간 전주(소담스퀘어 in 전주)에서 전주 중소기업인연합회(회장 임동욱 ㈜유니온씨티 대표)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우범기 시장은 23일 팔복동 제2산업단지에 위치한 소담공간 전주(소담스퀘어 in 전주)에서 전주 중소기업인연합회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강한 경제’를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정한 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중소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우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개별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 등을 놓고 격의 없는 대화를 했다.

우 시장은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적극 건의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총 2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4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수출기업 지원(9개 사업/5억) △시설개선 및 기업 육성 지원(8개 사업/6.5억) △고용안정 및 기업협력 지원(4개사업/1.9억) △자금 지원(10억) 등 경영현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상시 운

영되고 있다.

시는 또 공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물론이고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단지 근로자 및 청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산업구조 재편 및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임동욱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장은 이날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요즘이지만, 이렇게 시장님과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참 유익한 소통의 시간이 된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전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이 살아야 전주가 살 수 있다”면서 “기업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성장을 이루고, 전주시는 기업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규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주중소기업인연합회는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과 성장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9월 전주 소재 중소기업이 주축이 돼 설립됐으며, 현재 임동욱 ㈜유니온씨티 대표를 회장으로 중소기업 200여 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인생 후반기 귀농귀촌 체험 ‘맞손’

전주시-완주군, 50+세대 교육·공간 협력 지원 등 협약

전주시와 완주군이 신중년 세대의 인생 후반기 설계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23일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100세 시대를 맞아 50+세대들의 인생후반기 귀농귀촌 체험과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 공유와 콘텐츠 개발에 동참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양 시·군은 △50+세대들의 인생 후반기 귀농귀촌 체험을 위한 교육 및 공간 협력 지원 △50+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공동 운영 △50+세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 등 적극 협조와 행·재정적 지원 △전주시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및 홍보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다음 달부터 완주군과 함께 50+세대들을 위한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인 ‘인주에서 3일 살기+텃밭농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0+세대들이 공동 텃밭에서 키운 배추와 무 등 농작물은 수확철인 오는 11월 중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전주지역 복지기관 등에 기증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50+세대들이 인접해 있는 완주군의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인생 후반기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또한 완주군의 귀농귀촌 교육에 전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접한 지역간 상생의 물꼬가 트이는 시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원주=이종복 기자



전주시·도의회, 지역 발전 ‘한 목소리’

우범기 시장, 전주 지역 도의원과 간담회 갖고 민선8기 시정정책 공감대 형성

전주시의회, 초·중학생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 재개

전주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던 지방의회 체험교실을 다시 운영한다.

23일 시의회는 올해 하반기 지방의회 체험교실 참여를 위한 신청을 내달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이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한 지방의회 체험교실은 시의회 본회의장을 비롯한 각 시설을 견학하고, 본회의장에서 3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탐구하는 현장 체험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자세한 문의는 시의회 홍보팀(063-230-37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기자

우범기 전주시장과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민선8기 전주시정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한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는 23일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주 지역 도의원과 비례대표 도의원 등을 초청해 민선 8기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선 8기 시정목표인 ‘강한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범기 시장은 이 자리에서 △100만 통합 전주광역시도 생활권 조성 △전주형 일자리 창출 및 기업도시로 대변력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실현 △생애 전주기 맞춤형 교육·복지체계 구축 등 민선 8기 시정방향 및 정책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강한경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해



전주시는 23일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주 지역 도의원과 비례대표 도의원 등을 초청해 민선 8기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요구되는 각종 도비 보조 현안사업들에 대한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우 시장과 도의원들은 역동적인 전주 발전을 위해 전주시와 도의회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시장님께서 강한 경제를 표방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주를 찾고 머물기를 바

란다는 것으로 안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소통하고 함께 전주 발전을 이끌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새로운 민선 8기 시정정책 추진과 강한경제 구현 및 전주의 큰 꿈 실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과 정책 공유가 필요하다”며 “지역 정치권과 더 새롭고 탄탄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덕진구, ‘주민참여형 도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는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14억7000만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덕진동 등 16개동을 대상으로 시민불편지역 도로를 정비하는 ‘주민참여형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덕진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주민제안 공모를 거쳐 주민이 직접 제안한 29개 사업을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 사업내용은 △노후 도로 재포장(길이=2.2km) △노후 인도정비(길이=0.7km) 등 노후화로 인해 요철·파손

등이 발생해 재정비가 필요한 구간의 29개 사업이다.

구는 현재까지 13개 사업을 완료한 가운데 나머지 16개 사업에 대해 올 연말까지 도로환경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는 주요 자재 선정과 공사 하도급 등 최대한 전주지역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도로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최현창 시 덕진구청장은 “사람중심 보행 친화 덕진구 조성을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 가장 적합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도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